

Vol. 569 여름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Tel 02.765.3011~3



여름

Contents

대사관 관련

- 03 신임 공보문화원장 부임사
추조 카즈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부임 인사
- 04 쓰루노 유마 학생 인터뷰
'집에서 한일 교류', 인적 왕래가 어렵더라도 양국 교류는 지속한다!

일한 관계

- 06 日本語で語るニッポン_ 니시오카 타쓰시 前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인터뷰
세계로 시야를 넓히면 양국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아
- 10 사케 소믈리에 쿠마가이 칼럼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일본 술

일본 사정

- 14 일본의 계절을 걷다
예술 작품과 고양이가 가득한 세토내해의 섬을 걷다
- 18 조금 특별한 공간 미치노에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구마모토의 미치노에키
- 22 트렌드 앤 트렌드
살기 좋은 도시 후쿠오카 카페 산책

일본 문화

- 27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의 건축 건축가
일본 메타볼리즘(Metabolism) 건축을 대표하는 마키 후미히코
- 32 집에서 손쉽게! 일본의 가정요리
가을의 미각, 한상 차림
- 34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찾아서
여름 장마와 함께 생각나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문화 행사

- 38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 40 제7회 한일포토콘테스트
- 41 2020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
- 42 제9회 전국고등학생일본어스피치대회
- 43 설문조사 협력 의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

- 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표 지

강 위의 내륙종관열차(川の上を走る内陸縦貫鉄道)
제6회 한일포토콘테스트 INPAINTER GLOBAL상
Photo : LEE HYUNJUN

통 권 569호 계간지
(2019년 봄호부터 계간지 발행)

발행일 2020년 9월

발행처 주대한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디자인 상상디자인



추조 카즈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부임 인사

약력

1967년 06월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출생
1992년 03월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법학 석사)
1992년 04월 외무성 입성
1993년 07월 주한일본대사관 외교관보
1995년 07월 주미일본대사관 외교관보
1996년 07월 국제연합(UN) 일본정부대표부 2등서기관
1996년 12월 외무성 근무
2004년 07월 주한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공보문화원 부원장)
2007년 08월 주캄보디아일본대사관 참사관
2010년 08월 유럽연합(EU) 일본정부대표부 참사관
2012년 08월 외무성 유럽연합경제실장
2013년 01월 내각관방 내각참사관
2014년 08월 외무성 국제정보관
2016년 07월 관광청 국제관계담당참사관
2018년 06월 내각관방 내각참사관
2020년 08월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공보문화원장)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추조 카즈오(中條一夫)입니다.

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공보문화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근무입니다. 1990년대의 재외 연수(유학)를 포함하면 세 번째 한국 생활입니다. 문화원 건물은 그대로지만, 한국의 거리 풍경은 꽤 많이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제약을 받는 가운데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바이러스의 위협이 큰 압력으로 작용해 사회 활동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문화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핵심은 '체험의 공유'입니다. 음악, 예술, 연극, 스포츠, 학술, 관광 그 어느 것이나 '참가자가 같은 체험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즐겁고, 마음을 풍요롭게 해 줍니다. 이는 인류가 공통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회의 도래는 불행 중 다행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2m 이내에 없어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SNS 등을 통해 동시에 체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택과 직장에서도 교류하는 것도, 일본과 한국에서 교류하는 것도 거의 같은 느낌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문화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을 때마다 발전합니다. 예년처럼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없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대면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인터넷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들려주십시오.

2020년 9월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장
추조 카즈오(中條一夫)



‘집에서 한일 교류’ 인적 왕래가 어렵더라도 양국 교류는 지속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인적 왕래가 어려운 요즘, JENESYS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중심으로 양국 간 스카이프 교류 ‘집에서 한일 교류(おうちで日韓交流)’가 개최되었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직접 만나기 어렵더라도 ‘마음은 가까이’ 하며 교류를 지속해 나가려는 학생을 응원하고 있다! 오늘은 일본 측 참가자인 규슈대학(九州大学) 4학년 쓰루노 유마(霧野佑馬) 학생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한국과 일본 교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후쿠오카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도 있고 대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께서 한국어 강의 중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습관과 문화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셔서 점차 한국의 문화나 역사, 사회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교류에 관심을 가진 가장 큰 계기는 작년 이후에 악화한 양국관계에 있습니다. 미디어나 SNS에

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화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교류 등을 통해 자신의 눈과 귀로 직접 한국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JENESYS 프로그램을 포함해 교류사업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집에서 한일 교류’는 어떻게 알게 되었고,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참가 예정이었던 방한단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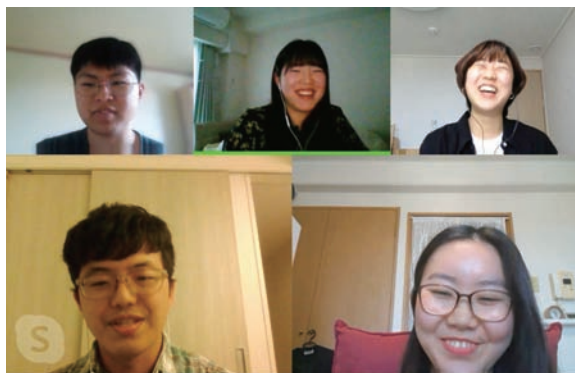


Photo : 공익재단 일한문화교류기금 NEWS NO.93

었습니다. 코로나19로 원래 예정된 한국 방문 계획이 취소되었고, 긴급사태선언 때문에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이번 온라인 교류회를 알게 되었고, 집에서도 교류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류회에서는 어떻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주로 일본어로 교류가 이루어졌지만, 한국어로 진행된 교류에도 조금 참여했습니다. 일본어로 하는 교류에서는 참여했던 한국인 멤버가 모두 유창한 일본어로 말해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어는 아직 공부 중이어서 다른 참가자에게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많았기에 더욱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몇 명 참여했고,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교류회 한 번에 평균적으로 4~5명 정도, 최대 6명이 교류했습니다. 다양한 테마로 이야기했는데, 자주 화제가 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양국 대응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방역이라는 공통적인 과제에 대해서 마스크 부족에 대한 대책이나 온라인 강의의 준비 상황, PCR 검사 체제 등 양국 간 대응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토론을 통해 재차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아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리랑’과 ‘아카톤보’(일본 동요 제

목, ‘빨간 잠자리’라는 뜻)를 같이 부르면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아리랑’에 대한 흥미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이번 온라인 교류를 통해 느낀 점 및 소감과 함께, 앞으로 온라인 교류에 다시 참여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번 온라인 교류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관한 지식이 깊어졌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또 참가했던 한국인 학생이 일본의 다도나 음악, 라면, 철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앞으로 있을 온라인 교류에도 시간이 되는 한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은 현재도 아직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하루빨리 종식되어 출입국제한이 풀리면(가능하다면 방한단으로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쓰루노 유마 학생

규슈대학 공학부 4학년. 2020년 3월 예정되어 있던 대학생 방한단(당시 3학년)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방한이 무산되었지만, 스카이프 교류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규슈대학 내에 있는 일한교류회와 한국어 공부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로 시야를 넓히면 양국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아

한국과 일본 관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니시오카 원장님은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제가 문화원장으로서 외교 활동을 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왜 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양호하고 협력 관계에 있으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며, 이 이익은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및 전 세계에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합의한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는 구체적인 한일 협력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관계 악화로 목표하

日韓関係が難しい状況になっていますが、西岡院長はどのように状況を見られていますか。

日本と韓国の二国間の間には、様々な複雑な問題が多数存在しています。これらの問題を解決しなくてはならないこと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が、私が文化院長として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に取り組んできた経験からいえば、問題をどうやって、どのように解決するかについて考えるだけではなくて、なぜ問題を解決しなくてはならないのか、なぜ日韓関係を改善しなくてはならないのかについて考えるアプローチも等しく重要だと感じています。

では、なぜ日韓関係を改善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お考えでしょうか。

本来、日韓関係が良好で協力的な関係であったならば、双方が得られる利益があるからであり、その利益は日韓両国のみならず、アジア全体にとって、世界全体にとって有益なものであるからであります。1998年に金大中大統領と小渕総理が合

던 협력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이러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 실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니까?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에 둘도 없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기본적인 가치관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 사회 구성면에서도 공통점이 많고, 직면한 과제에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협력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는 안보뿐만이 아닙니다. 양국이 이미 맞닥뜨리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다문화 공생 사회, 교육 및 환경 관련 과제의 대부분은 성장세가 가파른 아시아 여러 나라가 곧 마주하게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양국이 협력하면 많은 분야에서 아시아적 과제를 해결할 표준을 만들어 주도해 갈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책은 일본뿐 아니라 많은 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 관계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양국 관계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되려면 한국과 일본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한 데, 추진하고 있는 교류 사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시점의 양국 관계는 아직 미개발 상태임

意した日韓共同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には、具体的な日韓協力の方策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しかし、日韓関係が悪化し、目指していた協力は進展していません。日韓関係が悪化していることによって、そのような利益を生み出すことが出来ないことは、実に残念なことであります。

具体的には、どんな分野での協力が重要なのでしょうか。

日本と韓国は、アジアに二つしかない先進民主主義国家であります。基本的価値観のみならず、経済構造も、産業構造も、社会の構成も共通点が多く、直面する課題も共通のものが多くあります。協力すれば双方に利益がある分野は、安全保障だけではなくありません。日韓双方が既に直面している少子高齢化問題や多文化共生社会、教育や環境といった課題の多くは、今後成長著しい多くのアジア各国が直面する課題となります。これらの他にも、日韓が協力すれば、アジアにおける課題解決の標準型を作ってリードしていくことも可能な分野が多くあります。世界的にみても大変優れた評価を受けている韓国の新型コロナ感染症対策は、日本だけでなく多くの国が学ぶべきものであるし、コロナによる経済への打撃にどう対応していくかについても、日韓で協力して取り組む必要があります。協力関係を築くことがもしできるならば、これほどまでに大きな成果が得られる潜在力のある二国間関係は、世の中に他にな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そのために、日韓間の相互理解が必要であって、そのた





니다. 개발만 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가 수두룩한 미개척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외교 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문화 교류와 경제 교류, 인적 교류를 지속해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일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꼭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때일수록 양국 간의 차이만 논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작업이 값어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시야를 아시아 전체로, 나아가 전 세계로 넓힌 가운데 양국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협력해야만 하는 관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의식하면 저절로 양국 간 경제 교류, 인적 교류의 의의가 드러나라고 생각합니다.

3년의 임기 동안, 한국인과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들려주세요.

제가 대학생일 때 처음 방문한 외국이 단기 학생교류로 왔던 한국이었습니다. 1988년이었습니다. 당시 홈스테이를 했던 호스트 가정의 친구도 대학생이었는데 이번엔 3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또, '한일축제한마당'을 위해 함께 애쓰던 사람들은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めに交流事業を推進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

まさにその通りであります。現時点では日韓関係は、まだまだ未開発の状態であります。開発すれば双方に利益がある分野が、無数に広がっているフロンティアであるとも言えます。日韓の政府間の外交関係が悪化しているときでも、文化交流、経済交流、人的交流を継続していくことは難しいことであります。日韓関係を真剣に考える人達に是非提案したいことは、このようなきこそ、日韓の差異を議論するだけでなく、日韓の共通点を見いだしていく作業が有意義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そのような日韓の共通点は、どのようにすれば見えてくるのでしょうか。

日本と韓国だけでなく、視野をアジア全体に広げ、また、世界全体に広げた中で日韓関係を見てみましょう。視野を広げれば広げるほど、日韓の差異よりも共通点が見えてきます。世界全体の中では日韓は同様の課題に直面する、協力すべき関係だということがよくわかります。そのことを意識することで、自ずと日韓の経済交流、人的交流の意義が見えてくるはずだと思います。

3年間の任期の間、韓国人とどんな出会いがあったかについてお話して頂けますか。

自分が大学生だった時、初めて訪れた外国が、短期の学生交流で訪問した韓国です。1988年のことあります。その時にホームステイした相手も、当時大学生であったが、今回30年ぶりに再会しました。日韓交流おまつりに一緒に取り組んだ人達は、意見の違いを乗り越えながら、同じ方向に向かって仕





달려 온 동료였습니다. 그 밖에도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며 여행을 다니고 등산을 하던 친구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인 친구의 숫자만큼 한국을 떠나도 평생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소중한 한국인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해 일본인이 좀 더 알아줬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일본인은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는 하지만, 이는 일면일 뿐이고 다른 한 면의 올바른 사실은 일본에 안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많으며, 나아가 일본에 대해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이만큼 많은 나라는 없다는 점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대학 등 모든 분야에 일본어를 구사하는 사람 또는 일본 유학 경험자가 존재하며, 그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의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상대국과의 교류를 소중히 여기며 교류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폭넓고 깊은 국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간 관계는 사실상 달리 예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더 많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 나라에 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인 친구를 사귀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한국인과 세계 각지에서 더불어 술 한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事した仲間達です。そのほかにも、食事したり、酒を飲んだり、一緒に旅行に行ったり、一緒に登山をする友達にも恵まれました。日本人の友人と同じ位の数の、韓国を去っても一生お付き合いしていきたい、大切な韓国人の友人ができました。実に幸せなことです。

韓国について、日本人にもっと知って欲しいことがあるとすれば、何でしょうか。

韓国人は日本に対して厳しい感情を持っていると、日本人は思っています。それは正しいが、それは一面であって、反面もう一つの正しい事実は、日本に対し厳しい姿勢の人であっても、日本との関係は大事だと考える人が多いし、さらに言えば、日本のことをこれだけよく知っている人が多い国も他に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政治、経済、文化、スポーツ、大学、あらゆる分野に日本語を話し日本留学経験のある人たちがいて、その人たちが各分野での日韓関係を支えています。

日本と韓国のあらゆる都市や町に、相手国との交流を大事に継続してきている人たちがいます。こんなに幅広く奥深く、国民交流が行われている二国間関係は、実は他に例がないほどであります。このことをもっと多くの日本人に、また韓国人にも認識してもらいたいです。

最後に一言お願いします。

私はこれからいろんな国に行くと思いますが、どこにいても韓国人の友達を見つ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実はこれまでもそうしてきましたが、今後も韓国人と世界各地で一緒に酒を飲むこと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일본 술

집필 쿠마가이 켄(쿠마가이주류주식회사 대표)



한국에서 사케를 판매하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사케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차이를 잘 모르겠다’ ‘상품명이 길고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확실히 ‘쿠마가이 준마이 긴조 야마다니시키(熊谷 純米吟醸 山田錦)’라고 적힌 라벨을 보고 ‘이 술, 참 맛있겠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 선술집이나 초밥집, 정통 일본 요리점 등 일본식 음식점이 많이 들어서면서, 예전보다 사케는 친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여러 음식점에서 많이 소비되고(*2019년 수출량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있지만, ‘이 사케가 어떤 술인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주문하는 손님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케는 원래 어떤 술인가?’ ‘준마이 다이킨 조란 무엇인가?’ 등의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 상품명을 통해 ‘어떤 특징이 있는 술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분명 자신이 좋아하는 유형의 술을 찾기 쉬워지고, 지금 마시는 사케가 더 맛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와인의 원료는 포도, 맥주는 맥아, 그렇다면 사케의 원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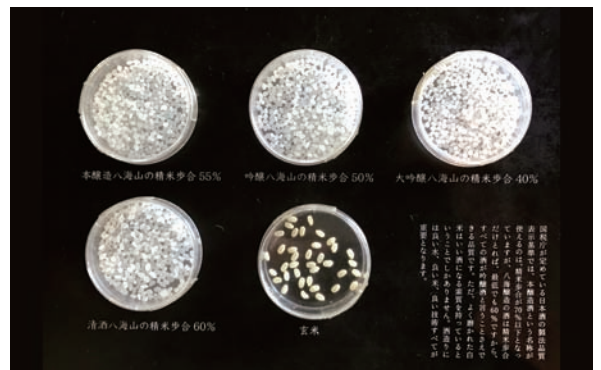
사케는 막걸리와 마찬가지로 ‘쌀’을 원료로 한 ‘양조주’입니다. 양조주는 곡물이나 과일 등을 알코올 발효시켜 만드는 주류로 사케와 막걸리 외에 와인과 맥주도 양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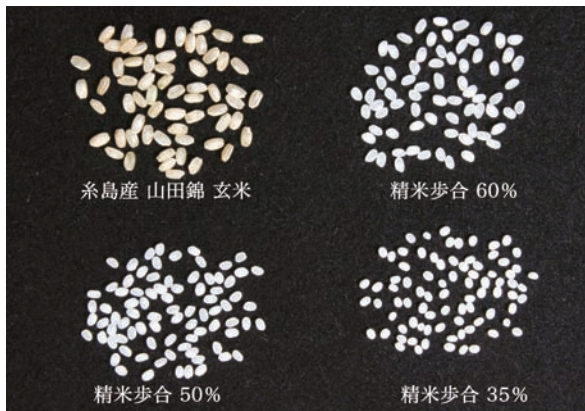
반면 소주나 위스키 등은 이 양조주를 증류(알코올 도수

를 높이는 공정)시켜 만드는 증류주로 분류됩니다.

‘준마이슈’와 ‘준마이 다이긴조란

사케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준마이슈(純米酒)’나 ‘준마이 다이긴조(純米大吟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사실 이는 사케의 분류 명칭 중 하나인데, 제조 방법과 정미율(원료가 되는 쌀을 껍을 깎는 비율)





의 차이에 따라 같은 사케라도 명칭이 달라집니다. '준마이슈' '준마이 다이긴조' 외에도 혼조조(本醸造), 긴조(吟醸), 다이긴조(大吟醸), 준마이 긴조(純米吟醸)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명칭에 어떤 차이가 있고, 맛이 어떻게 다른지 알기 위해 '도정' 공정에 대해서도 조금만 공부해 봅시다.

도정(쌀의 겉겨를 깎아내는 공정)에 대해서

사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원료가 되는 쌀의 겉겨를 깎아내는 '도정' 공정이 필요합니다. 쌀의 겉겨에는 단백질, 지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먹을 때는 맛있지만 술을 빚을 때는 잡맛의 원인이 되므로 도정해 제거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먹는 쌀은 현미 상태에서 5% 정도 도정하지만, 사케를 빚는 경우에는 70% 이상 깎아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료인 쌀알을 어느 정도 도정하느냐'에 따라 빚

어낸 술의 분류 명칭이 달라집니다.

원료가 되는 쌀을 50% 이상 도정해서 만드는 술을 '준마이 다이긴조'와 '다이긴조'라 부릅니다. 절반 이상 도정한 쌀을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완성된 술 역시 조금 비싸지만, 불순물이 적고 깔끔한 맛의 사케가 됩니다.

그 외에 '준마이 긴조'와 '긴조', 그리고 '준마이슈'와 '혼조조'라는 명칭의 술은, 원료인 쌀을 어느 정도 도정해서 빚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미율'의 차이로 구분합니다. 참고로 도정해서 깎아낸 쌀겨는 과자의 원료나 동물 사료로 소중하게 쓰입니다.

상품명에 '준마이'라고 표기된 경우

'준마이 다이긴조' '준마이 긴조' '준마이슈' 이 3개 명칭에는 모두 '준마이'가 붙어 있습니다.

'준마이'란 '순수하게 쌀로만 빚은 사케'라는 뜻입니다.

이에 비해 '준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은 '혼조조',



‘긴조’, ‘다이긴조’라는 명칭의 술에는 ‘쌀로만 빚은 게 아니라 다른 알코올(양조 알코올)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양조 알코올’을 약간 첨가하는 데는 ‘목 넘김을 좋게 한다’ ‘보존성을 높인다’ ‘향이 풍부해진다’ ‘맛을 단단히 잡아 준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조 알코올 첨가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이는 취향의 문제이며 저 개인적으로는 양조 알코올을 첨가한 ‘혼조조’를 가장 좋아합니다.

상품명에 ‘긴조’라고 표기된 경우

다음으로 ‘긴조’ ‘다이긴조’ ‘준마이 긴조’ ‘준마이 다이긴조’라는 4개 명칭에는 모두 ‘긴조’라는 말이 붙어있습니다. ‘긴조’란 ‘긴조 즈쿠리(吟醸造り)’라는 특별한 양조법으로 빚어진 사케를 말합니다. 저온에서 장기간 발효시켜, 글자 그대로 ‘정성을 들여 술을 빚어낸다’는 뜻으로 다른 사케보다 풍부한 향의 술이 빚어집니다.

과일처럼 풍부한 향을 가진 사케를 와인 글라스에 담아 즐기는 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케의 맛을 정리하자면

‘준마이슈’, ‘준마이 다이긴조’ ‘준마이 긴조’ 라고 표기된 사케는 쌀 본연의 감칠맛과 향긋한 쌀의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혼조조’, ‘긴조’, ‘다이긴조’라고 표기된 사케는 단단히 잡아주는 맛과 산뜻한 목 넘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긴조’ ‘다이긴조’ ‘준마이 긴조’ ‘준마이 다이긴조’ 라고



표기된 사케는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물론 같은 ‘준마이 다이긴조’라고 적힌 사케라 하더라도 술을 빚는 양조장마다 개성이 다르고, 사용하는 쌀의 종류나 물의 경도 등에 따라서도 향과 맛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칼럼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케를 취급하는 가까운 음식점에 들러 ‘준마이 긴조는 뭐가 있나요?’ ‘혼조조 중에서 추천해 주세요’라고 노련하게 주문을 시도해 봅시다. 업장 분으로부터도 틀림없이 사케에 정통한 손님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세토내해(나오시마)

예술 작품과 고양이가가 가득한 세토내해의 섬을 걷다



나오시마 항구의 호박(쿠사마 야요이)

화창한 날씨의 어느 여름날 아름다운 바다 세토내해의 작은 섬을 찾았다. 일본 주고쿠(中国)와 시코쿠(四国) 사이의 바다인 세토내해는 작은 섬이 많고 풍경이 아름다워 세토내해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섬에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를 위한 다양한 예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고양이가 사는 섬이 많아 고양이 섬이라고 불리며 애묘인의 천국이라 불리고 있다. 이날은 세토내해의 동쪽 오카야마(岡山)와 다카마쓰(高松) 사이의 작은 섬인 나오시마(直島), 오기지마(男木島), 메기지마(女木島)를 찾았다.

나오시마(直島)

나오시마는 세토내해(瀬戸内海)에 있는 작은 섬으로 가가



베세세 하우스 미술관



골목길의 하얀 고양이



이에 프로젝트



나오시마의 고양이 카페

와현의 중심도시인 다카마쓰(高松)에서 13km, 일본 본토 오카야마(岡山)의 우노(宇野)항에서 약 3km 떨어진 면적 14.22 km², 인구 3,173명의 작은 섬이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섬 곳곳에 미술 작품과 조각들이 진열되어 있으며 베세세 미술관, 지중 미술관, 이우환 미술관 등의 미술관이 있다. 또한 사람이 살지 않는 오래된 민가를 보존하기 위한 이에프로젝트(家プロジェクト, 빈 집을 예술 작품으로 채워 넣는 프로젝트) 등으로 섬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작품을 만나게 된다.

섬에 설치된 수많은 작품만큼 고양이도 쉽게 만나 볼 수 있으며, 작품과 고양이가 만드는 풍경은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섬 주민이 직접 보살피는 고양이도 많으며 작은 섬이지만 고양이 카페가 있을 정도로 고양이가 사랑받는 섬, 나오시마를 걷다 만난 하얀 고양이는 마을의 작은 길 골목에 앉아 사람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람이 지나가면 살짝 바라보기도, 하품하기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으면 꾸벅꾸벅 졸다가 인기척이 나면 다시 눈을 번쩍 뜨는 하얀 고양이, 골목을 지키며 나오시마를 찾

을 새로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오기지마(男木島)

오기지마는 다카마쓰항에서 북동쪽으로 7.5km 떨어진 면적 1.38km², 인구 180명의 아주 작은 섬이다. 국제예술제로 인하여 섬 곳곳에 다양한 미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섬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섬 대부분이 산이기 때문에 마을의 언덕이 가파르며



오기지마



오기교류관



도요타마 히메신사 가는 길



오기시마의 고양이들



오기시마 아늑 기억의 보들

길이 미로 같아 길을 헤매다 고양이를 만나게 된다. 마을 안을 언덕길과 돌계단이 미로처럼 펼쳐지는 오기시마는 걷는 섬이다. 언덕길을 오르락내리락, 골목을 헤매다, 높은 돌담, 가파른 돌계단, 집과 집 사이로 보이는 바다 걸으면 걸을수록 헤매면 헤맬수록 새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섬 언덕 위의 신사인 도요타마 히메신사(豊玉姫神社) 정상에서는 오기시마의 아름다운 전망이, 섬 반대편의 등대에서는 세토우치 바다와 수많은 섬 등 다양한 풍

경을 만날 수 있다.

메기지마(女木島)

메기지마는 다카마쓰항에서 페리로 20분 정도 걸리는 작은 섬으로 섬 한가운데 도깨비 동굴이라 불리는 오니가시마 다이도구츠(鬼ヶ島大洞窟)가 있어 도깨비 섬, 오니가시마(鬼ヶ島)라고도 한다. 섬 둘레는 8.9km, 면적은 2.62km²의 작은 섬이지만 다카토 야마(タカト山)라는



메기지마 전망대에서의 풍경



오니가시마의 도깨비 동굴



메기지마 항구의 고양이



메기지마 해수욕장



메기지마의 갈매기 오브제

216.0m 높이의 산이 있어 섬을 둘러보는데 제법 시간이 걸린다. 해안선이 아름답고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 여름 해수욕을 즐기러 다카마쓰 등 주변의 도시에서 이곳을 찾는다. 섬 곳곳에 고양이가 모여 살고 있으며 주로 항구 주변에서 고양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일본의 지중해라 불리는 다도해 세

토내해에서 열리는 국제예술제로 2010년 처음 개최하여 3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현대미술 축제다. 세토내해는 예로부터 일본 주고쿠(中国), 시코쿠(四国) 지역의 해양 교통 중심지로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는 섬 주민들의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던 세토우치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최한 문화제로 섬과 섬 주변의 항구에 미술 작품의 전시, 예술가, 극단, 악단 등에 의한 행사, 지역 전통 예능, 제사와 연계한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 예술제가 개최됨으로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게 되고 섬 주민과 교류에 의해 섬의 활력을 되찾고 섬의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을 살린 현대 미술을 통해 세토우치의 매력을 발산, 지금은 세계적인 국제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공식 홈페이지

<http://setouchi-artfest.jp/>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 작품 아루쿠 카타후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구마모토의 미치노에키

미치노에키 아소보노사토 구기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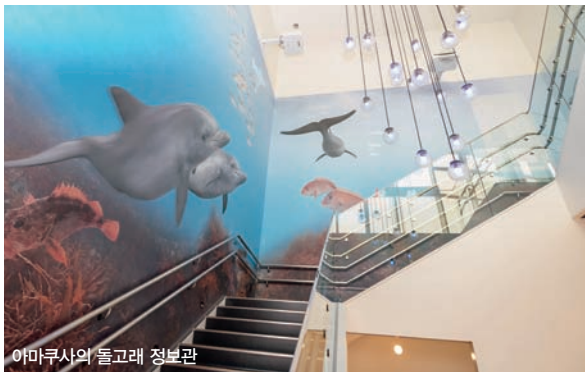
구마모토(熊本)는 일본 규슈 7개의 현(県) 중 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 활화산인 아소(阿蘇)산과 아리아케(有明) 해협을 품은 다양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구마모토시를 중심으로 교통이 발달해 있으며 수많은 온천과 칼데라 산맥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서쪽의 큰 섬인 아마쿠사(天草)에서 아소산까지 도로가 잘 놓여 있으며 다양한 풍경을 만나며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좋다. 길을 따라 곳곳에 고속도로 휴게소인

미치노에키에 들릴 수 있으며 멋진 풍경은 물론 온천, 돌고래 관찰, 메밀국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야생 돌고래를 관찰 할 수 있는 미치노에키 아마쿠사시 이루카센터(道の駅 天草市 イルカセンター)

구마모토의 서쪽 아리아케 해협의 큰 섬인 아마쿠사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섬이 모여 있는 제도다. 대부분의 섬은



아마쿠사의 돌고래 정보관



배를 타고 돌고래를 관찰하는 이루카 워킹



아리아케 해협의 돌고래

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섬들을 연결하는 5개의 다리를 아마쿠사 오교(天草五橋)라고 한다.

다리를 건너며 섬 해안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으며 가장 큰 시모시마(下島) 섬에는 아마쿠사의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배를 타고 앞바다로 나가 돌고래 워칭을 하며 돌고래를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미치노에키 아마쿠사시 이루카센터가 있다.

자연 속의 온천을 즐기는 미치노에키 미사토 사마타노유(道の駅 美里 佐俣の湯)

구마모토는 활화산인 아소산의 영향으로 곳곳에 유명한 온천마을이 많다.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구로카와 온천(黒川温泉)을 비롯해 히토요시 온천(人吉温泉), 히라야마 온천(平山温泉), 야마가 온천(山鹿温泉) 등 수 많은 온천이 있다. 미치노에키에도 온천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 많은데 미치노에키 미사토 사마타노유에는 자연 속의



미치노에키 미사토 사마타노유



미치노에키의 온천



미치노에키 카호쿠 오구리고



미치노에키의 특산물 판매장

넓은 노천탕과 가족끼리만 이용할 수 있는 가족탕이 있어 운전 중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들르면 좋다.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특산물이 만나는 미치노에키 카호쿠 오구리고(道の駅 鹿北 小栗郷)

구마모토 북쪽 히라야마 온천과 야마가 온천 사이를 가로지르는 국도가 지나는 오구리도우계(小栗峠)에는 인근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농산물과 특산물이 모이는 미치노에

키 카호쿠 오구리고가 있다. 각 지역의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미치노에키의 레스토랑에서는 맛있는 향토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야외 수영장도 있어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러 많은 사람이 찾는다.

소소한 체험을 즐기는 지역 주민의 교류 공간 미치노에키 미즈베 플라자 카모토(道の駅 水辺プラザ かもと)

미즈베 플라자 카모토는 야마가(山鹿)와 기쿠치(菊池) 사



야외 수영장



미치노에키의 특산물 판매장



카누 체험

이에 위치한 미치노에키로 지역 주민의 문화 공간이자 교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아마가 온천과 가깝기 때문에 수질 좋은 온천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카누, 사이클링, 피자 만들기 등 소소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아소산의 절경을 만나는 미치노에키 아소보노사토 구기노(道の駅 あそ望の郷 くぎの)

아소쿠주 국립공원(阿蘇くじゅう国立公園) 남쪽의 미치노에키 아소보노사토 구기노는 구마모토의 활화산인 아소산을 중심으로 아소산의 다섯 봉우리인 아소 5악(阿蘇5岳)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3,000평이 넘는 잔디 공원, 온천 등 테마파크 같이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구마모토 아소의 브랜드 소고기인 아카규(あか牛)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물이 좋아 맛있기로 유명한 아소 지역의 메밀국수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메밀국수 체험장 등이 있다.

미치노에키란?

미치노에키(道の駅)는 일본의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자가 제휴하여 설치한,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의해 등록된 상업시설, 체험시설, 지역부흥시설 등이 하나가 된 도로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며,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등 길이 나 있는 곳의 휴게시설을 미치노에키라 부른다. 1991년 테스트로 시작 1993년에 정식 등록되었으며 도로 이용자를 위한 휴게기능(Refresh), 도로 이용자와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한 정보 발신 기능(Information),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지역활성화기능(Community) 등 3가지 기능을 담당하며 일본 전국에 1,180곳이 등록되어 있다.

(2020년 7월 기준)



미치노에키 아소보노사토 구기노



아소5악이 한눈에 보이는 잔디밭



스테레오 커피

살기 좋은 도시 후쿠오카 카페 산책

후쿠오카(福岡)는 규슈에서 가장 큰 도시로 규슈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다. 깨끗한 거리와 많은 공원, 바닷가의 도시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바다를 볼 수 있으며 도쿄와 비교해도 부럽지 않은 쇼핑거리 등 여유롭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과거 여러 차례 아시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 후쿠오카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모이는 도시로 일본의 다른 비슷한 도



마쓰빵



마쓰빵 가게 골목



가장 인기 있는 리치 식빵



계속해서 구워내고 있는 빵들



커피맨



원두 선별

시에 비해 백화점, 카페, 쇼핑 시설이 많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과거 여성들을 규슈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부모 세대의 영향으로 규슈에서 가장 큰 도시인 후쿠오카에 여성들이 모였고 남성들은 일을 위해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의 대도시로 빠져나가게 되어 여성 인구가 많은 편) 이로 인해 브랜드 회사들이 신제품을 테스트하기에 좋은 도시로 유행에 민감하고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배로 3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 카페를 좋아하는 한국인과 현지 수요의 급증으로 거리는 물론 골목 골목 많은 카페가 생겼으며 이곳을 둘러보면 일본의 카페 트렌드를 살짝 엿볼 수 있다.

골목길의 아담한 베이커리와 카페,

커피맨(COFFEEMAN)과 마쓰빵(マツパン)

후쿠오카 지하철 2호선의 개통과 역 주변의 개발로 후쿠



시나몬 롤

오카의 핫 플레이스가 된 롯폰마쓰(六本松) 역과 조금 떨어진 골목에는 오래된 2층 건물을 개조하여 만든 작은 빵 가게인 마쓰빵이 있다. 매일 60종류 이상의 다양한 빵을 구워내고 있으며 찾기 힘든 위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내에 대부분의 빵이 팔려나간다. 아기들에게 이유식으로 먹여도 될 정도의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여 빵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후쿠오카의 주부에게 인기가 있는 가게다. 빵은 2층의 다다미방에 앉아 먹을 수 있는데 운영 시간이 짧아(8~15시) 그 이후에 찾아오는 손님은 근처의 카페를 찾으면 된다. 마쓰빵 골목 안에는 마쓰빵 보다 더 작은 크기의 카페가 있는데 커피맨(COFFEEMAN Roasting & Planning Café)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는 마쓰빵에서 산 빵과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곳의 소유주는 2014년 일본 커피 로스팅 챔피언십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엄선된 원두



green bean to bar CHOCOLATE



다양한 초콜릿 제품



직접 초콜릿을 제작



카카오 원두

를 다양하게 블렌딩하여 제공하며 입
맛에 맞는 커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커피와 함
께 마쓰빵의 베이커리도 좋
지만, 이곳의 특제 시나몬
롤도 궁합이 잘 맞는다.



코코아와 초코 브라우니

를 맛볼 수 있다. 카카오 콩을 직접 수입하여 초
콜릿을 만드는 수제 초콜릿 카페는 유행처럼 늘
고 있으며 도쿄의 단테라이온(Dandelion), 홋
카이도의 세러데이 초콜릿(SATURDAYS
CHOCOLATE) 등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
고 있다.

카카오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카페

green bean to bar CHOCOLATE

가끔 커피가 부담되거나 다른 특별한 음료를 찾는 사람을
위한 카페. 전 세계 카카오 농장에서 우수한 카카오 콩만
을 엄선해서 들여와 수작업으로 만들어 내는 초콜릿 제
조 업체이자 카페 green bean to bar CHOCOLATE, 후
쿠오카의 카페 골목인 이마이즈미(今泉)에 있다. 카카오
의 감정에서 선별, 로스팅, 분쇄, 그라인딩, 숙성 등 카카
오 콩이 초콜릿이 되어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며 카
카오 티, 초콜릿 등 카카오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와 음료



인스타 명소 스테레오 커피 벤치



젊은 층에 인기있는 스테레오 커피



맥킨토시 앰프와 오디오 시스템



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스탠딩 테이블



스테레오 커피 카운터

스테레오 커피 STEREO COFFEE

최근 새로운 건물이 많이 생기고 있는 후쿠오카 와타나베도리(渡辺通り) 골목의 작은 카페, 입구의 파란 의자와 깔끔한 인테리어로 인스타에서 인기를 끌며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카페로 알려졌다. 1층은 음악을 들으며 서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앰프와 연결된 2개의 커다란 스피커에서는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온다. 2층은 갤러리 공간으로 후쿠오카 아티스트의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후쿠오카의 아티스트와 인스타를 보고 싶은 젊은 층이 모여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문화공간이 된다.

굿 업 커피 Good up Coffee

한적한 주택가에서 카페 골목으로 바뀌는 야쿠인(薬院) 지역의 카페, 정원 6~7명 정도의 작은 가게며 아늑하고 편안한 인테리어가 여유롭게 카페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골목 사거리의 코너에 위치해 창가 자리에서 거리를 다니는 사



양버터 토스트

람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낸다. 후쿠오카, 규슈의 로스팅 전문점의 원두를 사용하며 단팥이 듬뿍 올려진 양버터 토스트가 인기다. 골목골목 후쿠오카 카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다.



굿 업 커피



인기의 창가 테이블



카페 창가의 풍경

렉 커피 REC COFFEE

2008년 후쿠오카에서 시작해서 5곳에 지점이 있으며 최근 도쿄까지 지점을 늘린 커피 전문점으로 바리스타인 대표가 일본 국내 외의 다양한 바리스타 대회에서 입상했다. 다양한 종류의 로스팅 원두를 판매하고 있으며 직접 마셔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종이 필터, 금

속 필터, 에스프레소 머신 등 추출 방법을 고를 수 있는 것도 재미있으며 원두에 따라 최적의 추출법을 추천해 준다. 일본에는 블루 보틀 커피를 꿈꾸며 스페셜 티 커피로 체인을 늘려가는 카페가 많으며 후쿠오카의 렉 커피, 교토의 %커피, 도쿄의 사루타히코 커피 등이 경쟁 중이다.



렉 커피



필터를 골라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다.



원두는 시음을 해보고 살 수 있다.



다양한 음료와 추출 방법 선택이 가능



아사히 TV 본사(テレビ朝日本社ビル, 도쿄, 2003)

일본 메타볼리즘(Metabolism) 건축을 대표하는 마키 후미히코



마키 후미히코 ©jeanbaptisteparis

마키 후미히코(槇文彦)는 일본과 미국에서 건축 공부와 교육 활동을 하며 건축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다양한 시도를 했으며 1960년대에 등장한 일본의 새로운 기술로 성장하고 진화하며 변화에 대응하는 이상적인 도시 구조와 디자인을 제안하는 메타볼리즘(Metabolism)을 대표하는 건축가다. 도시의 건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므로 역사, 자연환경,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의 전통적 공간 구조인 오클(奥, 깊이)와 마(間, 간격)를 잘 표현했으며 이는 대중적이면서 현대 건축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창성을 지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런 그의 건축은 일본건축학회상(1962, 1984, 2001), UIA 골드 메달(1993), AIA 골드 메달(2011) 등 수 많은 건축상을 받았으며 1993년 단게 겐조



시마네현립 고대 이즈모 역사박물관(島根県立古代出雲歴史博物館, 시마네, 2007) ©micra



힐 사이드 테라스(ヒルサイドテラス, 도쿄, 1969) ©Wiii



스파이럴(スパイラル, 도쿄, 1985) ©Wiii



교토 국립근대미술관(京都国立近代美術館, 교토, 1986) ©Wiii

에 이어 일본에서는 두 번째로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다.

마키 후미히코는 1928년 도쿄에서 태어나 게이오(慶應) 중, 고등학교를 마치고 게이오대학에 진학했다. 건축에 관심이 있던 그는 게이오를 중퇴하고 도쿄대학 건축학과에 입학, 1952년 졸업 후 단게 겐조(丹下健三) 연구소에서 작업하다 유학을 결심하게 된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크랜브룩 미술대학(Cranbrook Educational Community), 하버드대학 대학원(Harvard University)을 졸업하고 미국의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며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한다. 이후 미국 활동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와 도쿄대학 교수로 일하며 후배를 양성했으며 아흔이 넘는 나이에든 현역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마키 후미히코의 대표작으로는 도쿄 다이칸야마의 복합주택인 힐 사이드 테라스(ヒルサイドテラス, 도쿄, 1969), 도쿄 아오야마를 대표하는 복합 상업 건물인 스파이럴(スパイラル, 도쿄, 1985), 도쿄 모터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마쿠하리 멧세(幕張メッセ, 치바, 1989), 교토 국립근대미술관(京都国立近代美術館, 교토, 1986), 롯폰기 힐즈의 아사히 TV 본사(テレビ朝日本社ビル, 도쿄, 2003), 도키 멧세(朱鷺メッセ, 니가타, 2003), 요코하마 아일랜드 타워(横浜アイランドタワー, 요코하마, 2003), 시마네현립 고대 이즈모 역사박물관(島根県立古代出雲歴史博物館, 시마네, 2007) 등이 있으며 9·11 테러로 무너진 뉴욕 세계 무역센터 터에 짓는 새 무역센터 빌딩(フォー・ワールド・トレード・センター, 미국, 2013) 4개 중 하나를 설계했다.



마쿠하리 멧세(幕張メッセ, 치바, 1989) ©掬茶



도키 멧세(朱鷺メッセ, 니가타, 2003) ©HIRO



무역센터 빌딩(フォー・ワールド・トレード・センター, 미국, 2013) ©Deepen03



프리츠커 건축상

Pritzker Architecture Prize

프리츠커 건축상은 매년 하얏트 재단이 '건축예술을 통해 재능과 비전, 책임의 뛰어난 결합을 보여주어 사람과 건축 환경에 일관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한 생존한 건축가'에게 수여 하는 상이다. 1979년 제이 프리츠커(Jay A. Pritzker)가 만들고 프리츠커 가문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건축상 중 하나다. 이 상은 국적,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와는 관계없이 주어지며 건축적 작업을 이루기 위해 들어간 양질의 혁신성과 건축적 사고의 훌륭함이 이 상의 기준이 된다. 건설 기술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기여도 역시 중요 요건이다.



가제노오카 소우사이조 (風の丘葬斎場, 오이타, 1996) ©Wiii



가을의 미각 한상 차림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가 빨리 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가을을 느끼게 되었다. 이번 메뉴는 가을철 식재료인 고등어, 가지, 쑥갓을 사용한 요리다.

고등어는 봄과 가을이 제철이다. 그러나 봄은 산란기이기도 하고 가을에 지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더욱 맛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가을 고등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양식도 하고 외국산도 많아 1년 내내 맛있는 고등어를 먹을 수 있다. 고등어 된장 조림을 만들 때의 포인트는 조리하기 전에 미리 뜨거운 물에 5초 정도 데쳐 표면의 미끈거림을 제거하면 비린내를 없앨 수 있다.

가지는 여름부터 가을이 맛있다고 하는데, 그 종류가 다양하여 오랜 기간 맛있는 가지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 선배가 ‘여름 가지는 굵고, 가을 가지는 튀기는’ 것이 맛있다고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하

고 있다. 일본에서는 여름에는 구이로 가을에는 튀겨서 먹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쑥갓. 일본어로 순기쿠(春菊)다. 일본 요리의 메뉴 상에서는 가을 메뉴에 봄(春)이라는 글자를 넣지 않기 때문에, 가을 시기에 쑥갓은 순기쿠(春菊)가 아니라 기쿠나(菊菜)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쑥갓과 팽이버섯을 사용했지만, 버섯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표고버섯, 만가닥버섯, 잎새 버섯 등도 함께 저려보자. 차게 해도 따뜻하게 해도 다 맛있는 음식이다.

3가지 요리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 요리에 밥과 된장국만 있다면, 훌륭한 일본요리 한 상 차림이 된다. 한번 만들어 보자.

집필 마츠나가 분고(松永文吾)

협력 나카무라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고등어 된장 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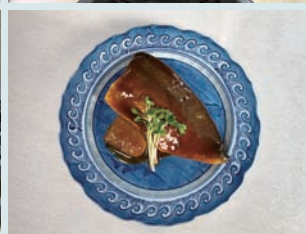


【재료】

고등어 반 마리 / 곤약 1조각 / 무순 약간 / 생강 약간
물 250cc / 청주 50cc / 설탕 20g / 미림 15cc
진간장 5cc / 적된장 25g

【조리법】

- ① 고등어는 뜨거운 물에 5초 정도 데쳤다가 물에 행구어, 표면의 미끈거림을 제거한다
- ② 냄비에 물, 청주, ①의 고등어, 곤약, 생강 썬 것을 넣고 끓인다.
- ③ 끓어오르면 부유물을 걷어내고, 설탕, 미림, 진간장을 넣어 3분 정도 끓인다.
- ④ 적된장을 국물에 풀어 냄비에 넣고, 약한 불에서 10~15분 정도 조리한다.
- ⑤ 국물이 걸쭉해지면 불을 끈 후 그릇에 담고, 무순을 곁들인다.



닭고기 소보로를 얹은 가지



【재료】

가지 1/2개 / 소금 적정량 / 다진 닭고기 35g / 다시 150cc
미림 10cc / 청주 10cc / 고이쿠치(진간장) 10cc
물에 녹인 녹말 적당량 / 잘게 썬 쪽파 약간

【조리법】

- ① 가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 ②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가지를 볶는다.
익으면 소금으로 간한다.
- ③ 냄비에 다시, 미림, 청주, 진간장을 넣고 끓인 후, 다진 닭고기를 넣고 섞는다. 부유물이 뜨면 걷어내고, 다진 닭고기가 익으면 물에 녹인 녹말을 부어 걸쭉한 소보로를 만든다.
- ④ 그릇에 가지를 담고 ③의 소보로를 부은 후, 잘게 썬 쪽파를 얹는다.



쑥갓 다시 절임

【재료】

쑥갓 40g / 팽이버섯 10g / 가다랑어포 약간
육수 150cc / 소금 2g / 청주 10cc
미림 10cc / 진간장 5cc

【조리법】

- ① 쑥갓, 팽이버섯은 3~4cm 길이로 썬다.
- ② 냄비에 다시, 소금, 청주, 미림, 진간장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쑥갓, 팽이버섯을 넣고, 한번 더 끓어오르면 불을 끈다.
- ③ 쑥갓, 팽이버섯을 그릇에 담고 육수를 넣는다.
위에 가다랑어포를 얹는다.





여름 장마와 함께 생각나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하쿠슈 오지로노 모리 메이사이 공원 베투가



공원의 숲



호쿠토시의 터널



아케노 선플라워 페스티벌 ©Hokuto City

비의 계절이 시작되면 사랑이 돌아온다. 장마가 시작되면 생각나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いま、会いにゆきます)’. 이 영화의 배경지를 찾아 도쿄에서 열차를 타고 야마나시의 시골 마을로 향했다. 영화는 일본의 작은 마을과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이자 가족 드라마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작품으로 일본 소도시의 소소한 풍경과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영화 대부분은 도쿄 북서쪽의 나가노(長野)현과 야마나시(山梨)현에서 촬영했으며 작품의 중심이 되는 장면 대부분은 야마나시현의 호쿠토시(北杜市)다. 호쿠토시는 후지산 북쪽, 나가노현과 야마나시현 경계에 있는 곳이다. 갈

은 영화의 배경인 나가노의 스와시(諏訪市)와 인접하며 일본 남알프스(南アルプス), 후지산(富士山), 야쓰가타케산(八ヶ岳), 긴푸산(金峰山) 등 3,000m급 산에 둘러싸인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다. 특히 포스터에도 등장하며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해바라기 꽃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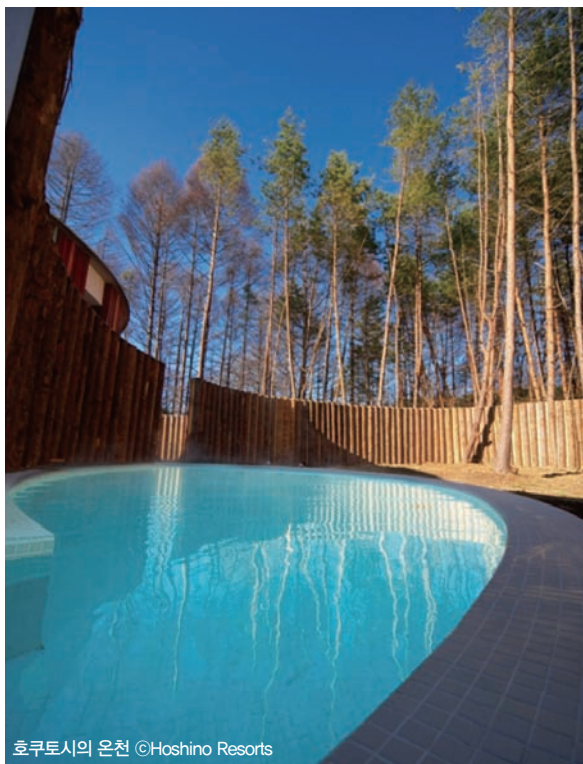
60만 그루의 해바라기밭이 장관을 이루며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나는 7월~8월 사이에는 아케노 선플라워 페스티벌(北杜市明野サンフラワーフェス) 축제가 매년 개최된다. 또 작품에서는 장마가 시작하며 터널 뒤의 폐공장에서 여주인공이 환생하는데 이 터널도 호쿠토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화 속 주인공의 추억의 장소이자 가족과 함께 거닐던 숲





호쿠토시의 미술관



호쿠토시의 온천 ©Hoshino Resorts



리조나레 야쓰가타케 ©Hoshino Resorts

도 이곳이며 하쿠슈 오지로노 모리 메이스이 공원 베틀가(白州・尾白の森名水公園べるが)라는 이름으로 공원 겸 캠프장, 온천 시설로 가볍게 찾을 수 있다.

호쿠토시는 도쿄에서 열차로 2시간 정도로 교통이 편리하며 미술관,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 펜션과 대규모 리조트(리조나레 야쓰가타케) 숙박 시설, 온천이 있어 관광지로도 인기가 높고 도쿄 인근의 시민이 휴양지로 즐겨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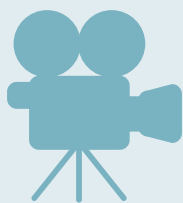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いま、会いにゆきます, 2004)는 일본의 소설가 이치카와 다쿠지(市川 拓司)의 판타지 연애 소설로 2003년 발행하여 100만 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후 2004년 10월 영화로 개봉하여 4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으며 큰 인기를 얻었으며 2005년 7월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1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영화는 다케우치 유코(竹内結子), 나카무라 시도(中村 獅童)가 주연을 맡았으며 이 영화를 계기로 결혼했지만 3년 후 이혼하게 된다. 드라마는 나리미야 히로키(成宮 寛貴), 오카모토 아야(岡本 綾)가 출연했다. 작품과 함께 주제가도 큰 인기를 모았으며 영화의 주제가인 하나(花), 드라마의 주제가인 기즈나(絆) 두 곡 모두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주제가는 일본의 록 그룹 오렌지 렌지(ORANGE RANGE)가 담당. 한국에서는 2005년에 개봉한 후 2018년 재개봉했으며 소지섭, 손예진 주연의 영화로도 리메이크되었다. 일본의 방송국인 TBS, 광고기획사 하쿠호도, 출판사 쇼가쿠칸 등이 참여한 ※미디어 프랜차이즈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와 함께 대표적인 히트작으로 이후 일본 작품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로케 장소 가이드

<http://loca.ash.jp/>



※미디어 프랜차이즈, 하나의 상품 또는 미디어 소스를 여러 미디어 형태로 확장하여 판매 및 판촉하는 것을 일컫는다. 일본에서는 미디어 믹스(メディアミックス, Media Mix)라고 표현하며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드라마, 영화 등 한 작품을 다양한 방면으로 전개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포스터



지금 만나러 갑니다 리메이크(한국, 2018)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우정의 해'를 계기로 시작된 한일축제한마당이 올해는 11월 10일(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매년 한국과 일본 최대의 민간 교류 행사로 양국의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이 올해는 코로나19 관계로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된다. 또 11월 15일(일)에는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공식 유튜브를 통해 주요 행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에게 마음의 위안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진행되는 한일축제한마당! 우리 모두 하나되어 나아가자!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관련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응모 바란다.

일시 2020년 11월 10일(화) 온라인 개최

테마 하나되어 나아가자 / 心あわせて乗り越えよう

슬로건 즐거운 축제 / 즐거운 만남 / 즐기는 우리

주최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실행위원회

주관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운영위원회

주관사무국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이벤트 1] 요사코이 아리랑 댄스 챌린지 감동적인 축제의 피날레를 온라인과 함께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한일축제한마당 피날레를 온라인으로 함께 즐길 수 있다! 한국의 음악과 일본의 춤이 만나 이루어진 '요사코이 아리랑' 댄스 챌린지 영상을 보내주시면, 11월 10일(화) SNS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한일축제한마당 피날레에 영상으로 참여하게 된다.

+댄스 챌린지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주얼리(선착순 30명) / 후드 티셔츠(참가자 전원 각2장씩) 증정)

응모 기간 : 2020년 8월 18일(화)~10월 8일(목)

참가 자격 : 제한 없음(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한일축제한마당에 참여하고 싶은 모든 분)

참가 방법 : 영상 3분 이내





- ① 요사코이 아리랑 안무 영상을 보고 댄스 챌린지 영상 찍어 보내기
영상 끝에 '한일축제한마당! 하나되어 나아가자!'라는 응원 메시지 추가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요사코이 아리랑 영상 보기 및 요사코이 아리랑 음원 다운로드 받기
<http://omatsuri.kr/movie>
 - ② 자신의 You Tube 또는 SNS에 #한일축제한마당 #요사코이아리랑댄스챌린지
해시태그를 붙여 업로드 하기
 - ③ 아래 내용을 적어 공식 이메일로 보내기
 - 제목 : 요사코이 아리랑 댄스 챌린지
 - 본문 : 이름, 연락처, 주소, 업로드한 You Tube URL 또는 SNS 주소
- **댄스 챌린지 영상을 이메일로 직접 보낼 경우, 대용량 첨부파일(10MB 이하)로 보낼 것
공식 이메일 및 문의 : omatsuri2020@gmail.com

[이벤트2] 한일축제한마당 유튜브 채널 구독 EVENT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 메시지 남기기

응모 기간 9월 10일(목) ~ 10월 30일(금)

참가 방법

하나!!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둘!! 짧고 굵은 응원 메시지 남기기

당첨자 발표 11월 5일(목) 한일축제한마당 홈페이지 및 SNS

선물 선착순 500명에게 후드 티셔츠 1장

**자세한 내용은 한일축제한마당 홈페이지 참조 <http://omatsuri.kr>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유튜브 채널 구독
EVENT**

11월 10일(화) 12시 온라인 중계
한일축제한마당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선착순 구독자 500명에게
후드 티셔츠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7회 한일포토콘테스트 개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제7회 한일포토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사진을 통해 양국 국민이 상대국의 매력을 새로이 발견하고, 문화 교류 촉진과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양국 간 왕래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한국 그리고 일본'을 콘셉트로 새로운 교류의 형태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온라인 행사로서의 저력을 발휘하며, 더 많은 참가자가 부담 없이 응모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응모 방법

일본인은 '한국의 매력'을 테마로 한국 또는 일본에서 찍은 사진을, 한국인은 '일본의 매력'을 테마로 일본 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제7회 한일포토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http://kjphotocon.org>)를 통해 응모한다.

심사를 거쳐, 우수 작품 응모자에게는 콘테스트 운영기관(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부 기관 및 지자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2. 개최 일정(예정)

— 작품모집 ▶ 2020년 9월 25일(금)~2020년 11월 25일(수)

행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

— 결과발표 ▶ 2020년 12월 4일(금) / 행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작품전시 ▶ 2020년 12월 14일(월)~12월 24일(목) / 장소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시상식 ▶ 2020년 12월 19일(토) / 장소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시상식 및 전시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행사로 변경될 수 있음.





2020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가나콘)

한국의 중학생·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어 문자(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모티브로 창작한 디자인 콘테스트를 실시한다. 일본어 문자인 가나를 사용한 디자인을 창작해 응모하는 콘테스트로 일본어 학습 경험과는 관계없이 이미 일본어를 접하고 있는 학습자는 물론, 그 이외의 학생도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참가 방법 등은 '가나콘' 전용 홈페이지 <http://www.jfkanacon.orgblank> 참조.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후원 (주)모리사와코리아, 일반재단법인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인페인터글로벌, 시사일본어학원, 일본어저널,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문의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02-397-2827 <http://www.jfkanacon.orgblank>

1. 취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는 한국의 중학생·고등학생 및 청소년(만14세부터 18세)을 대상으로 일본어 문자(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모티브로 창작한 디자인 콘테스트를 실시한다.

2. 사업 개요

(1)사업명 : 2020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가나콘)

(2)작품 응모 : 2020년 7월 1일(월)~11월 13일(금)

*응모처 : 가나콘 전용 홈페이지(www.jfkanacon.org)

(3)결과 발표 : 12월 2일(수) 13:00

*발표처 : 가나콘 전용 홈페이지(www.jfkanacon.org),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홈페이지

(4)온라인 수상식 : 12월 16일(수)

(5)온라인 수상작 전시 : 12월 16일(수)~2021년 1월 31일(일)

(6)주최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7)후원 : (주)모리사와코리아,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시사일본어학원, 인페인터글로벌, 일본어저널,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3. 공모 내용

(1)응모자 자격 : 한국 국적의 중학생·고등학생 및 청소년(만 14세에서 18세)

(2)응모 부문(2부문) : 중학생부문 / 고등학생부문

(3)수상 내역

대상(각 부문별 1명씩 총 2명) / 부상

우수상(각 부문별 2명씩 총 4명) /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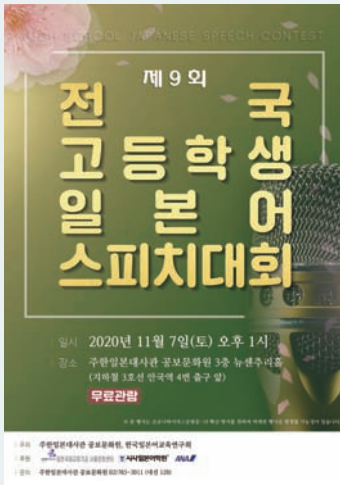
장려상(각 부문별 3명씩 총 6명) / 부상

특별상(각 부문별 4명~10명 최대 20명) / 부상

4. 2019년도 주요 수상 작품

(응모작품 수 : 중학생 / 1,336점, 고등학생 / 2,999점, 총 : 4,365점)





제9회 전국고등학교일본어스피치대회

한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일본어 스피치대회.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등 전국 총 10곳(영남지역 및 제주주는 제외)에서 각각 지역 예선이 개최된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참가자는 11월 7일(토) 실시되는 본선 대회에 출전해 다양한 주제를 일본어로 발표한다. 참가 신청은 9월 1일(화)부터 10월 9일(금)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응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r.emb-japan.go.jp/event/event_20200901.html

1. 대회 일정

가. 참가 신청 : 9월 1일(화)~10월 9일(금)

나. 본선 진출자 발표 : 10월 16일(금)

※ 지역 예선은 각각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총 10곳에서 진행되며, 각 지역 예선 일정은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연락.

다. 본선 : 11월 7일(토) 13:00~17:30

※ 본선 개최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선은 비대면 행사로 변경될 수 있음.
(본선 진출자 발표시 개별 안내)

2. 참가 자격

가. 한국의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것.

나. 한국 국적자로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닐 것.

다. 영남지방, 제주도는 각각 주부산일본총영사관과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주최 고등학생 스피치대회 우승자가 본선에 참가함.

3. 참가 방법

가. 참가 신청서 작성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https://www.kr.emb-japan.go.jp/event/event_20200901.html

나. 음성 파일로 제작 작성한 원고를 바탕으로 본인의 육성으로 스피치를 녹음하여 mp3 파일 형태로 제출.

다. 10월 9일(금)까지 제출.

참가 신청서와 mp3 파일을 10월 9일(금)까지 kojata08@gmail.com으로 제출.

메일 제목에 <제9회 전국고등학교일본어스피치대회참가_○○○(이름)>라고 기입.

4. 원고 작성 및 스피치 요령

가. 참가 신청서의 원고 작성 칸에 스피치 제한 시간 5분 분량에 맞춰 원고를 작성한다.
(대략 1,500자 내외 A4 2매가량)

나. 반드시 지정한 참가 신청서 양식(MS워드)에 작성할 것.

다. 후리가나는 기입하지 말 것.

라. 스피치 시에 패널, PPT 등의 이용은 불가.

마. 원고는 사전에 제출한 내용으로 하며, 원고를 단상에 들고 갈 수 있으나 외워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스피치 시간(5분) 엄수.





〈일본의 새소식〉 설문조사 협력 의뢰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발행하는 〈일본의 새소식〉을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봄호 〈일본의 새소식〉은 어떠셨나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본 기간지가 일본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여러분께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더 많은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설문조사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 ‘흥미로웠다’라는 의견부터 ‘다음에는 OO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 ‘이 정보는 오래되지 않았나?’라는 기탄없는 의견까지 폭넓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독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일본의 새소식〉 코너 설문지(<https://forms.gle/axmtjbyxSLX5LVY69>)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STOP! 感染拡大 — COVID19 —

가장강도면 이혼나와 일본, 야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심정지등 좌충우돌 유학 야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일본에 있어 여름은 마쓰리의 계절, 하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 쇼크로 이번 여름은 대부분의 마쓰리가 중지되었거나 소규모로 실행되었다고 한다.



**밀폐공간, 밀집공간, 밀접공간
'3밀(密)'을 피합시다!!**

교토의 경우
기온마쓰리는 물론
아오이마쓰리까지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여
거리행진이 전면중지되었다.

여름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하나비(花火)라고 예외가 있을까!



교토 고잔오쿠리비 또한 점화 점을 대폭 간소화하여 TV에서 생중계 했다.



*교토고잔오쿠리비(京都五山送り火)는 매년 8월 16일 오봉(お盆)중에 내려 온 선조의 혼을 다시 하늘로 올려 보내는 교토의 제례행사.

연초만 해도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랍과 달리, 사태는 더욱 심각해져 일상이 마비되었고 우울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 SNS를
활용해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는 곳이 있으니...



연일 집콕
그야말로
코로나 감옥~
우울해...



박물관
음악&연극 공연장
미술관
식물원
동물원...

관람객이
오지 못하면 우리가
관람객을 찾아간다.
전 세계를 향하여
발신!!

'원장님과 산책' 인★라이브 방송 교토시 동물원
사카모토히데후사(坂本英房) 원장님.

늘 무령왕이 태어난 섬 일본 가카라시마에서 성대하게 치러져 왔지만 올해는 양국에서 각각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무령왕릉 백제 연못에
올려 퍼진
대백제의 숨결~**



*너울너울 춤추는 오가하스 무령왕 연꽃이 백제연못에서 활짝.

한편 일본에서는 2년 전부터 무령왕 탄생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흑마늘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아쉽게도 올해는
서로 왕래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는 끈끈한 정으로 맺어져
있지요. 곧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일본 마쓰로 백제무령왕국제네트워크
협의회 미야자키다카시(宮崎卓) 회장님.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혀 양국을 오갈 수 없지만 현실에 굴하지 않고 교류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한일 양국의 가고, 백제 25대 무령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난 7월 21일, 공주 무령왕릉내 백제연못.

그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 여러분을 제 16회
한일축제한마당에 초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완전 썬!